

광주시내버스 10대 중 7대 화재 취약 엔진에 불 날까 운전기사들도 '불안'

■ 화재 위험에 노출된 광주 시내버스

차종	현대 유로 5	현대 유로 6	대우차 BS 106
보유현황	700여대	200여대	100여대
엔진룸 특성	터보장치와 고무·플라스틱 소재 인접	터보장치와 고무·플라스틱 소재 분리	
광주시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행 중 터보장치 온도가 1000도 이상 치솟아 뜨거운 오일이 고무·플라스틱 소재 정지로 흐를 경우 계절과 상관없이 화재 유발 • 자체 정비 항목도 아니고 시민 안전 위협 		
현대차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적 결함 인정하기 힘들다. 본사차원에서 입장 정리 중이다 		

지난달 19일 운행 중 화재 승객 30여명 긴급 대피 현대차 유로5 차종 700여대 구조적 결함...市, 시정 요구

하루 47만명이 이용하는 '시민의 발'인 광주 시내버스 10대 중 7대가 화재에 취약해 안전에 위협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광주시의 '시내버스 화재발생에 대한 검토' 문서에 따르면, 현재 운행 중인 시내버스 차량 구조를 분석한 결과 현대차 유로 5 차종의 엔진룸 구조가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준공영제로 운영 중인 광주 시내버스는 현대차 유로 5(700여대), 유로 6(200여대), 대우차(100여 대) 등 3개 중 1000여 대인데, 이 중 유로 5 차종 700여대가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현대차의 유로 5 차종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 이유는 엔진룸 터보장치와 인화성 물질인 고무호스나 플라스틱 소재로 된 장치가 인접하게 설계된 구조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광주시는 판단하고 있다. 운행시 온도가 최대 1000도까지 치솟는 엔진룸 터보장치에서 뜨거운 오일이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소재로 흘러내릴 경우 계절과 관계없이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19일 오후 1시22분 광산구 목련마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일어난 시내버스(37년·유로 5 차종) 화재 역시 엔진룸 터보장치 파손으로 인한 오일 누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광주시는 보고 있다. 당시 버스는 승객 30명이 타고있었지만 정차 중이었던 탓에 신속한 대피가 이뤄져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 하지만, 버스는 엔진룸과 유리창 등 차량 뒷부분이 순

시간에 불에 타 녹아내렸다. 이번 화재 사고 전에도 광주 시내버스 10개 업체 소속 2000여명의 운전기사들은 유로 5 차종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운전에서 부담을 느껴왔다고 광주시와 버스조합 측은 설명했다.

현대차 유로 5, 유로 6, 대우차(BS 106) 등 버스 3종의 엔진룸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유로 5 차종이 다른 2개의 차종과 달리 화재에 취약한 구조로 제작됐다고 여겨질 만한 구조적 특성이 드러났다. 유로 5보다 신형 차종인 유로 6과 대우차의 엔진룸 터보장치 옆에는 고무나 플라스틱 등 화재에 취약한 소재로 된 장치가 격리돼 있었던 것이다.

시내버스 특정 차종 엔진룸의 구조적 결함으로 버스 운행 중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린 광주시는 제작사인 현대자동차 측에 최근 결함 시정을 요구했다. 해당 버스 차종이 전국에서 운행 중인 것을 감안하면, 탑승객 안전을 위해 이와 유사한 요구가 잇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지난달 23일 현대자동차연구소장, 현대자동차국내사용차서비스팀장, 현대자동차 호남상용차고객지원팀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현대차 뉴슈퍼에어로시티(유로 5)에 대한 구조적 결함을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최근 화재가 발생한 유로 5 시내버스에 대한 수리비도 전액 보상에 줄 것을 요구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하루 평균 시내버스 이용객이 47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차량 구조적 문제로 또다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광주시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 측은 이와 관련, "관리주체 측의 관리 소홀이지 차량 결함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조만간 방침을 정리해 광주시 측에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태극기 바람개비

광복 70주년을 나을 앞둔 11일 오전 광주시 북구청 광장에 설치된 태극기 바람개비 앞에서 한복을 곁들여 차려입은 중흥어린이집 어린이와 북구청 청년위원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북구청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태극기에 대한 시민들의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태극기 바람개비는 이달 말까지 운영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복 70주년 끝나지 않은 이야기

일본에 강제징병 히로시마서 원폭피해 강진 이화석 翁

7면

학교설립 61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임금피크제 도입 반대” 금호타이어 파업 강행

광주·곡성·평택사업장 부분파업 사측 “최고대우 불구 파업 유감”

금호타이어 노조가 11일 예정대로 파업을 강행했다. 전날 본교섭에서 사측이 대폭 수정된 제안을 새로 내놓았지만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일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지회는 이날 광주·평택·곡성 등 전 사업장에서 근무조별 4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였다. 금호타이어는 비상조를 투입하는 등 파업 피해 최소화에 나섰지만 생산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부분파업기간은 14일까지이며 금호타이어는 이 기간 116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장규 금호타이어 대표는 이날 광주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의 생산·경영지표가 모두 업계 하위임에도 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를 보장했고 거기에 대폭 상향된 안을 새롭게 제시했는데도 노조가 파업을 강행한 것에 대해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파업철폐를 촉구했다. 노사는 앞서 10일 오후 14차 본교섭을

갖고, 사측이 내놓은 새 제시에 대해 협의했으나 노조의 반대로 결렬됐다.

금호타이어는 기존의 일당 정액 970원 인상에서 1900원 인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300만원의 일시금 지급 및 정년 60세를 61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급 요구는 외면한 채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한 일시금을 제시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년연장과 일시금 지급을 임금피크제와 연동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사측 제안을 거부했다.

노조는 17일부터 방산요원과 필수요원을 제외한 전 조합원이 8시간 전면 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전면 파업이 시행되면 금호타이어는 하루 52억원가량의 매출 손실을 입게 된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말 워크아웃 졸업 뒤 3번째 파업 정국에 휩싸이게 됐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기아차 ‘쏘울’ 해외 판매 100만대 돌파

‘메이드 인 광주’ 수출 효과 ‘포프 모빌’ 美·유럽서 인기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수출 효과 차종’ 쏘울이 해외 판매 100만대를 달성했다. 113만대를 넘어선 스포티지에 이어 두 번째다.

11일 기아자동차에 따르면 준중형 박스카 쏘울(Soul)은 2008년 출시 이후 지난 6월까지 전기차 쏘울EV를 포함,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 101만7813대가 수출됐다. 일별로 세우면 서울~광주 직선거리인 300km를 7번이나 왕복할 수 있는 숫자다. 앞서 쏘울은 지난 1월 누적 생산 100만대를 돌파(쏘울EV 포함)했다.

쏘울은 수출 첫해인 2008년 1만463대가 배에 선적된 뒤 뛰어난 디자인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큰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특히 2세대 모델이 본격 판매되기 시작한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43.6% 증가한 21만7368대로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해 8월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당시 ‘포프 모빌’로 쏘울을 선택해 화재가 났으며 가톨릭 신자가 많은 유럽 지역의 판매량이 급증하기도 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10만17813대가 수출됐다. 쏘울의 누적 수출 대수는 같은 기간 국내 판매 대수(8만3346대)보다 12배나 많은 것이다.

쏘울의 최고 시장은 미국으로, 지난해 전체 수출 물량 가운데 80%를 차지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14만5317대로 연간 최대 판매 기록을 세우며 K5와 함께 기아차의 미국 판매를 이끌고 있다.

쏘울의 성공 요인은 우수한 디자인과 상품성, 창의적인 광고 등이 꼽힌다. 쏘울은 2009년 한국차로는 처음으로 레드닷 디자인상을 받았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시간을 거슬러
눈부시게 빛나는 길
헤라 에이지 리버스 쿠션

시간을 거슬러는 빛을 가져와
피부에 빛을 머금어 빛나는 빛이 되게
속해선 어떤 피부도 되살려주는 에이지 리버스 쿠션
눈부신 빛과 젊음 그 모든 것을 갖고 더 눈부시게

HERA